강화의 역사 문화가 숨 쉬는 길

강화스토리워크 가이드맵

강화스토리워크는
강화읍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70년대 초까지 한국 방직산업을 이끌었던 직물 공장들
민족정신을 가진 독립운동가와 문필가의 치열했던 활동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강화의 교회와 성당…….

숨결이 깃든 역사 문화를 심도(沁都) 강화읍에서 만난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퇴색된 곳이 있지만
여전히 이곳에는 강화 역사와
대한민국 근대사가 살아있다.

※ **심도(沁都)** : 몽고의 침입으로 고려 수도를 강화로 천도하면서 읍호를 강도(일명 심도)라 하였다. 심도는 지금까지 강화읍을 지칭해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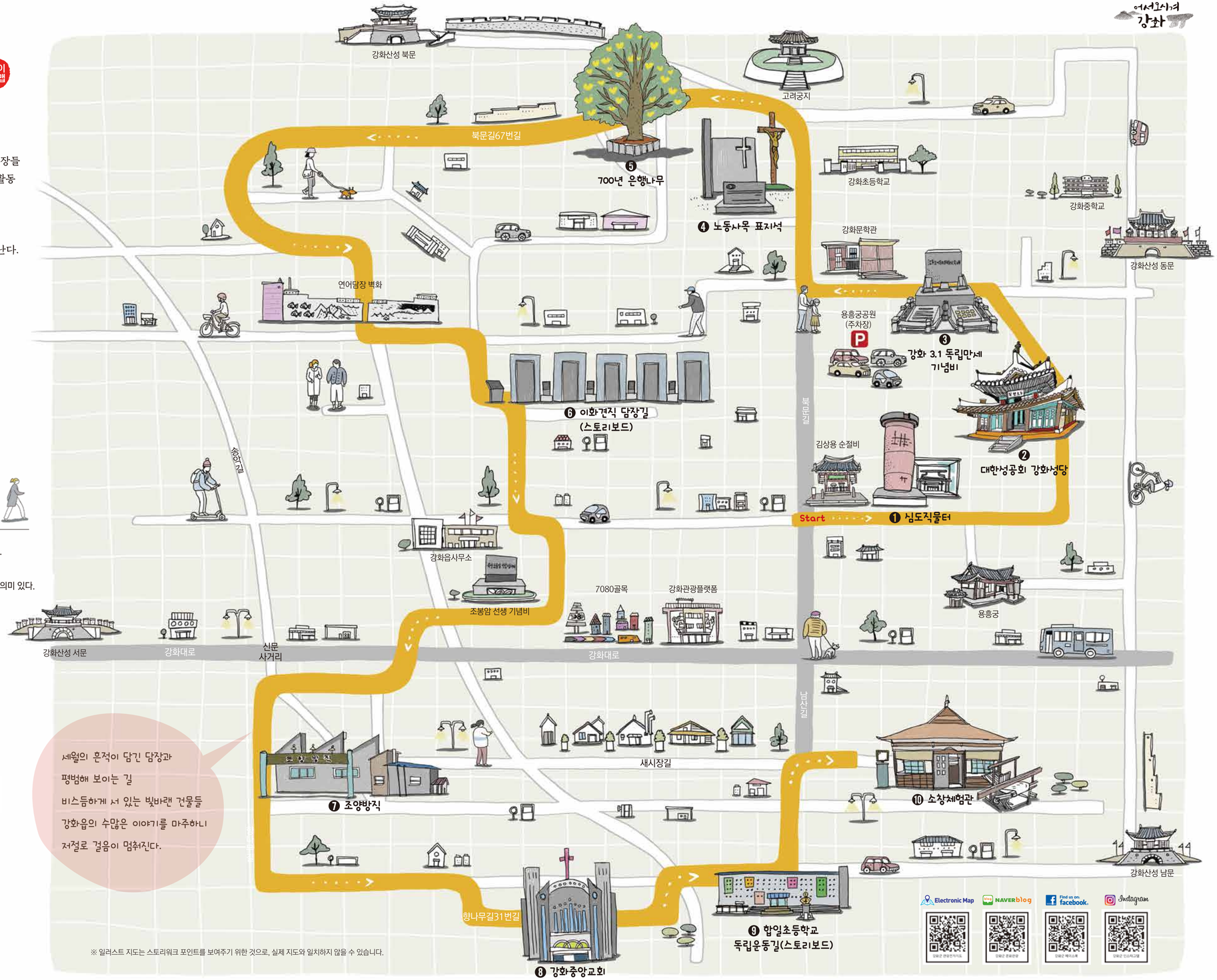
강화스토리워크

강화읍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를 직접 걸으며 느끼는 도보 여행이다.
강화의 역사, 산업, 종교를 한 눈에 만날 수 있다.
이는 강화 역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근대사와 연결돼 있기에 더욱 의미 있다.
총 길이는 약 2.6㎞이며, 약 9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강화스토리워크 코스

1. 심도직물터
2.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3. 강화 3.1 독립만세 기념비
4. 노동사목 표지석
5. 700년 은행나무
6. 이화견직 담장길(스토리보드)
7. 조양방직
8. 강화중앙교회
9. 합일초등학교 독립운동길(스토리보드)
10. 소창체험관

2.6km
약 90분 소요



※ 일러스트 지도는 스토리워크 포인트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지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화읍 원도심 뚜벅이 여행

Ganghwa Stamp Tour

강화의 명소를 직접 걸으면서 만나보자.
강화스토리워크를 따라 걷다보면
네 곳의 스탬프(스티커) 지점에
자연스럽게 도착하게 된다.
스탬프(스티커)를 모두 찍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스탬프·스티커 찍는곳

※ 기념품 지급 조건 : 강화읍 원도심 내 5,000원 이상 구입 영수증 지참

스토리워크 포인트

포인트	주 소
심도직물터	강화읍 관청리 405 용흥궁공원 내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강화읍 관청길27번길 10
강화 3.1독립만세 기념비	강화읍 관청리 405 용흥궁공원 내
노동사목 표지석	강화읍 북문길 41 천주교 강화교회 내
700년 은행나무	강화읍 북문길49번길 1 근처
이화견직 담장길 (스토리보드)	강화읍 관청길55번길 3 근처
조양방직	강화읍 향나무길5번길 12
강화중앙교회	강화읍 청하동길 36
합일초등학교 독립운동길 (스토리보드)	강화읍 합일길 3
소창체험관	강화읍 남문안길20번길 8

스토리워크 연계 포인트

포인트	주 소
김상용 순절비	강화읍 관청리 405 용흥궁공원 내
용흥궁	강화읍 동문안길21번길 16-1
강화문학관	강화읍 관청길 40
고려궁지	강화읍 북문길 42
강화산성 북문	강화읍 관청리 784 일대
연어 담장 벽화	강화읍 관청길64번길 2
조봉암기념비	강화읍 강화대로440번길 10
7080골목	강화읍 강화대로430번길 일대
강화관광플랫폼	강화읍 강화대로 430 중앙시장 B동 3층

강화의 역사 문화가 소록소록 숨 쉬는 길

강화스토리워크 가이드맵

1970년대 한국 최고의 직물공장

심도직물(터)

지금은 용흥궁공원이지만, 과거에는 강화의 직물산업을 주도한 심도직물이 이곳에 있었다. 심도직물은 1947년 창업한 국내 굴지의 직물회사였다. 1970년대에는 역직기 210대와 1200여 명의 직원이 있을 정도였다. 당시 강화의 직물산업은 한국 최고였고,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공원 옆에 있는 굴뚝이다. 당시 30m가 넘을 정도로 컸지만, 지금 전시된 것은 윗부분 일부이다. 그 옆에 실제 사용한 직조기를 전시했고, 주변으로 직물 원료인 목화나무(8월 개화)를 심었다.

조선독립운동의 기념비적 발자취

강화 3.1 독립만세 기념비

1919년 3월 7일, 강화읍 장날을 맞아 강화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 시작점은 강화읍 관청리 523번지 웃장터로 강화군민에 김포군민이 합세해 24,000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유봉진 선생을 포함한 20명의 주도자가 갖은 옥고를 치러야 했다. 기념비는 1994년 견자산 기슭에 처음 세워졌고, 그 후 1996년 발상지인 웃장터로 옮겼다가 2011년 8월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다.

고려로부터 이어온 생명의 역사

700년 은행나무

고려궁지에서 강화산성 북문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다. 1982년 강화군에서 보호수로 지정할 당시 688년 수령이었으니 지금은 700년이 훌쩍 넘었다. 나무가 심어진 시기는 1300년 경의 고려시대였다. 몽고와 오랜 전쟁 후 고려가 차츰 쇠락의 길을 걷던 시기였다. 고려, 조선 그리고 한국 근대사를 오롯이 지켜봤던 은행나무는 강화읍이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

강화의 직물 역사를 품은 '핫 플레이스'

조양방직

현재 카페로 리모델링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지만, 원래 조양방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식 방직 공장이었다. 강화의 지주였던 홍재묵 · 지용 형제가 1933년 민족자본으로 설립했는데, 이는 1936년의 서울 경성방직보다 3년 빠른 것이었다. 1934년에는 역직기를 가동하기 위해 강화도에 전기를 끌어오기도 했다. 당시 강화읍은 어느 도시보다 발전된 곳이었다. 조양방직은 1960년대까지 국내 최고의 인조직물을 생산했지만, 1990년대가 되면서 값싼 중국산 직물에 밀려 쇠락하게 되었다.

3.1운동의 살아있는 기록들

합일초등학교 독립운동길(스토리보드)

합일초등학교 개교는 독립을 열망하는 강화 사람들의 의지와 열정이 담겨 있다. 후세를 교육하지 않으면 독립도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합일초등학교는 잠두교회가 창립된 이듬해인 1901년, 교회부설 '잠두의숙'으로 세워졌다. 기독교 신앙으로 민족의식을 강화하고, 독립과 계몽운동을 펼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독립운동길 스토리보드는 김구 선생의 휘호 '홍익인간'과 독립운동을 했던 강화 사람들에 대한 판결문을 부조형식으로 만들었다. 3.1운동 당시 강화경찰서에 "조선독립운동에 찬동하여 운동하는 자를 검거하지 말라"고 했던 조구원 외 7인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스토리워크 포인트

심도직물(터) ·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 강화 3.1 독립만세 기념비 · 노동사목 표지석 · 700년 은행나무 · 이화견직 담장길(스토리보드) · 조양방직 · 강화중앙교회 · 합일초등학교 · 소창체험관

한국 최초의 한옥 성당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심도직물 굴뚝에서 고개를 조금 돌리면 언덕 위에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이 있다. 특별한 성공회 성당으로 내부는 유럽식이지만 외형은 전통 한옥양식으로 지어졌다. 1900년 11월에 축성되었는데, 궁궐 도편수가 주도해서 지었고 처음 형태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 전통 한옥으로 지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이고, 일제강점기에는 교회 정문 계단 난간과 종을 징발당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노동 운동의 시작

노동사목 표지석

심도직물 생산품이 국내외로 인기를 얻으면서 강화의 경제는 활기가 띄었지만 반면 어두운 면도 생겨났다. 노동력이 부족해진 회사는 어린 소녀들과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요구했다. 이에 천주교 강화성당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노동자와 직물회사 간에 '심도직물 사건(1965~1968년)'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한국 천주교가 노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첫 사건으로 가톨릭 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지석은 천주교 인천교구 강화성당 안에 있다.

강화 직물 산업의 흔적

이화견직 담장길(스토리보드)

1970년대까지 강화읍은 우리나라 최고의 직물 생산지로 대구와 견줄 정도로 직물산업이 번성하였다. 당시 강화읍에는 심도직물 외에 이화직물(견직), 조양방직, 평화직물 등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직물 공장이 있었다. 스토리보드는 강화 직물산업의 역사, 강화 사람들, 직물 공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화직물(1953년 설립)이 있던 담장을 최대한 살렸고, 직조기와 공장 전경을 부조 형식으로 제작해 당시 모습을 재현하였다.

계몽과 민족 운동의 구심점

강화중앙교회(감리교)

강화중앙교회는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다. 교회 역사가 곧 우리나라 근대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육 · 계몽 ·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1907년 강화진위대가 강제 해산되자 의병이 일어났고, 김동수 · 김남수 권사, 김영구 성도가 이와 연루돼 목숨을 잃기도 했다. 조봉암 선생, 이동휘 강화진위대장, 최상현 합일초 교장 등 민족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모두 강화중앙교회 출신이었다. 이에 대한 기록이 교회 내에 전시돼 있다.

※ 진위대 : 1895년 지방의 질서유지와 변방 수비를 목적으로 설치된 최초의 근대 지방군대
※ 잠두교회-강화읍교회를 거쳐 1976년 강화중앙교회로 교회 명칭 변경

강화도 소창에 대한 재밌는 체험

소창체험관

40~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사용하던 많은 면직물이 소창이었다. 소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재 천'을 말하는데, 이는 '거즈(gauze)'의 잘못된 발음이다. 한 때 강화의 직물산업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었고, 그만큼 수많은 방직 공장이 강화읍에서 직물을 생산했다. 소창체험관은 1956년에 설립된 평화직물인데, 이를 강화군이 매입해 체험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창을 직조하던 기구들이 전시돼 있고 소창손수건 탁본 찍기 등 소창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

강화특산물, 강화 소창 어디서 살까

소창 판매점

스토리워크 코스에서 만날 수 있는 직물산업의 역사를 기념품샵에서 만나보세요.

오소소

수제작으로 손수건, 가방, 베갯잇 등 다양한 소창 제품을 만든다. 오소소 텀블러백이 2019년 강화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강화읍 강화대로 430 강화중앙시장 B동 1층
010-5394-2382
10:00~18:00(매달 10일 휴무)

한두뼘1,2갤러리

스카프, 손수건 등 소창으로 만든 다양한 소품을 판매한다. 별도 전시 공간에서 소창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강화읍 강화대로 429 강화중앙시장 A동 1층
010-3126-5220
11:00~20:00(매월 10일, 25일 휴무)

강화소창이야기협동조합

소창을 이용해 만든 제품을 판매·전시하며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천연 염색한 빛깔 고운 소창을 만날 수 있다.

양도면 강화남로893번길 11
010-7311-7482
11:00~18:00 (일요일은 14:00까지 운영)

이랑아트

소창에 고려산 진달래를 패브릭아트 해 강화 특성이 잘 드러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광목으로 제조한 스카프, 가방, 모자, 방석 등도 판매한다.

강화읍 강화대로 429 강화중앙시장 A동 2층
010-7106-1235
11:00~18:00(매월 10일, 25일 휴무)

스토리워크 연계포인트

김상용 순절비

김상용(1561~1637)은 병자호란 때 강화성이 함락되자 화약을 스스로 터트려 순절한 인물이다. 비각 안에는 2기의 비(왼쪽 : 7대손 김매순 건립, 오른쪽 : 종증손 김창집 건립)가 있다.

용흥궁

용흥궁은 조선왕조 제25대 왕인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살던 집이다. 왕위에 오르고 4년 후에 지금처럼 짓고 용흥궁이라 불렀다. 창덕궁 연경당, 낙선재처럼 살림집 형태로 지어졌다.

강화문학관

강화문학관은 강화 출신의 수필가 고(故) 조경희 선생의 유지에 의해 건립되었다. 조경희 선생은 한국 문학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로, 육필 원고 등 여러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고려궁지

몽고 침입에 저항하기 위해 고려는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이곳에 궁궐을 지었다. 강화도는 약 39년 간 고려를 통치하는 중심이 되었다. 아쉽게도 궁궐은 화친을 맺으면서 모두 허물어졌다.

강화산성 북문

고려궁지에서 북쪽으로 10분쯤 올라가면 강화산성 북문인 진송루(鎭松樓)가 나온다. 외적을 맞아 강화를 지켰던 호국 역사의 현장이다. 멋진 산책로가 있어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연어 담장 벽화

강을 거슬러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삶을 그린 벽화이다. 김주희 작가 작품으로, 연어가 태어나고, 바다에서 시련을 겪은 후 다시금 회귀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조봉암 선생 기념비

조봉암 선생은 강화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였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195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형당했다. 2011년 1월,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를 기념해 강화읍사무소 옆에 기념비를 세웠다.

7080골목

강화관광플랫폼 옆에 위치한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1970~80년대 정서와 정취가 물씬 느껴진다. 골목은 그리 길지 않지만 닭집, 분식, 카페, 포차, 김밥 등 우리가 즐겨 먹었던 음식들로 가득하다.

강화관광플랫폼

중앙시장 B동 3층에 위치한 강화종합관광안내소이다. 많은 관광안내 자료가 비치돼 있고, 안내사가 상주해 있어 여행자에게 꼭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려의상 입어보기와 가상현실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Food

맛 보시겨! 강화 향토음식!

젓국갈비

강화도 향토음식으로 몽고 항쟁 시절 왕에게 대접하기 위해 만든 음식에서 유래됐다. 돼지갈비에 각종 나물과 채소를 넣고 끓인 다음 새우젓으로 간을 해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금수레보쌈

강화 음식문화거리인 '강화별밤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입소문을 타고 여행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젓국갈비와 함께 차려진 정갈한 밥상은 강화 전통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강화읍 동문안길 8-1 032-933-4844
10:00~22:00

신아리랑

이른 새벽 문을 연다. 젓국갈비 국물에 밥을 말아 새콤한 순무 한 조각을 올려 먹으면 아침 냉기에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는다. 갈 길 바쁜 여행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음식점이다.

강화읍 강화대로409번길 4-3
032-933-2025 06:00~20:30

용흥궁식당

용흥궁 근처에 위치한 곳으로 70여 명이 수용 가능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강화의 향토 음식인 젓국갈비와 함께 담백한 국물이 일품인 한방오리백숙을 맛볼 수 있다.

강화읍 동문안길21번길 22
032-933-8070 09:00~21:00

일억조식당

갈비와 두부, 감자를 넣고 끓은 젓국갈비 하나면 밥 한 공기가 금세 비워진다. 반찬으로 나온 밴댕이젓갈은 또 다른 밥도둑이다. TV프로그램 '알쓸신잡'을 통해 유명해졌다.

강화읍 동문안길21번길 17 032-933-4224
09:00~20:00(휴식 시간 14:30~15:30)

고을식당

젓국갈비와 함께 '고을밥상'이 유명하다. 한 상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에 강화의 인심이 가득 담겼다. 특히 석쇠에 직접 구운 돼지구이 맛이 일품이다.

강화읍 강화대로 400
032-934-3386 11:30~21:00

※ 소개 음식점은 서비스개선 코칭에 참여한 곳으로, 젓국갈비를 주요 메뉴로 하고 있습니다.

Cafe

커피 한 잔의 여유

여행꼭지점 카페

강화군 관광홍보물 자료가 비치되어 있으며, 지역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카페입니다.

여행꼭지점 카페

그루브잇

강화 연근과 연잎으로 만든 연라떼가 유명하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은 여행자에게 신선함을 선물한다. 내부에 다양한 미술작품들이 전시돼 있어 차를 마시며 감상할 수 있다.

강화읍 남문로 56 032-933-9399
11:00~22:00

들

베트남식 샌드위치(반미)와 스무디(신또)를 맛볼 수 있는 이색카페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빵은 매일 아침 유기농 밀가루로 직접 만든다. 스무디는 시럽을 넣지 않고 과일로만 맛을 낸다.

강화읍 향나무길22번길 11 032-933-7992
11:00~21:00(월요일 휴무)

크리스투 유오디아

매일 신선한 원두를 골라 직접 로스팅 한 커피는 진한 맛과 향기를 남긴다.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규모가 아담하지만 사장님의 커피와 관광에 대한 정보는 흘러넘칠 정도로 풍성하다.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30-10
010-3325-9781 08:00~19:00

당분소녀

달콤한 마카롱과 수제 케이크가 가득한 디저트 전문점으로 SNS에서 꽤 유명하다. 방문 전 미리 예약을 하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특별한 케이크를 맛볼 수 있다.

강화읍 청하동길9번길 3-1 010-2779-0101
11:00~19:00(월요일 휴무)

다온

고려궁지 밑자락에 위치한 카페는 여행자들에게 쉼을 선물한다. 더치커피 전문점으로 다양한 종류의 원두로 커피를 내린다. 직접 담근 과일청으로 만든 음료와 다과도 별미이다.

강화읍 북문길 30 032-933-5117
12:00~21:00(월요일 휴무)

Culture & Experience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

문화 · 체험 공간

문화

딸기책방

파란 지붕의 아늑한 서점은 옛날 책방의 정취를 물씬 풍긴다. 카페를 함께 운영하며 동화책이 많아 아이들과 방문하기 좋은 서점이다.

강화읍 동문안길 33 070-8865-0385
10:00~19:00(월요일 휴무)

소금빛서점

강화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책을 주로 모아놓았다. 매달 주제별로 책을 기획 · 전시하기에 특별한 재미가 있다.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 7
010-9845-5999
11:00~19:00(목요일 휴무)

유림상회

머그컵부터 찻잔, 접시 등 다양한 그릇을 파는 가게이다. 감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SNS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강화읍 남문안길 7 032-934-3456
13:00~19:00 (인스타그램, 블로그로 휴무 공지)

체험

물댄동산

찻잔부터 컵, 접시, 주걱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 수 있다. 수제 도자기를 전시·판매하고 있다.

강화읍 강화대로 430 강화중앙시장 B동 2층
010-6679-6725 11:00~20:00(월요일 휴무)

Lab green

프리저브드 플라워(가공처리를 거쳐 시들지 않게 만든 꽃)와 드라이플라워를 이용해 다양한 꽃 소품을 체험할 수 있다.

강화읍 강화대로 430 강화중앙시장 B동 2층
010-3024-7792 11:00~21:00(월요일 휴무)

팟하우스

도자기 공방에서 조물조물 흙을 다져 모양을 잡고, 물감을 이용해 색을 입힌다. 건조와 굽기를 반복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도자기가 완성된다.

강화읍 남문안길 33 010-7240-6661
09:00~21:00(월요일 휴무)

아란

은은하게 퍼지는 캔들(향초)은 긴장을 풀고 힐링을 준다. 100% 천연 콩을 재료로 하며, 디퓨저, 석고방향제 등도 만들 수 있다.

강화읍 남문안길 9-1 032-932-6017
10:00~19:00

한입거리 간식

핑거푸드

강화까까

강화특산물인 인삼과 쑥으로 만든 타르트이다. 전국 5대 타르트집으로 불릴 만큼 유명하다.

강화읍 강화대로 430 중앙시장 B동 2층
010-3627-8597
11:00~19:00(월요일 휴무)

아빠랑 식빵이랑

매일 아침 빵 굽는 냄새가 발길을 사로잡는다. 식빵은 유기농 밀가루로 당일 판매할 만큼만 만든다.

강화읍 동문안길 5
032-932-0505
10:00~식빵 소진 시까지

강화스토리워크

강화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Tel. 032)930-3564 | www.ganghwa.go.kr
발행일 2020년 1월